

◇백용성스님

“대각교 운동으로 식민체제극복 노력” 13일 대각사 용성스님 세미나 생애·사상·대각불교 등 조명

3·1운동 당시 만해 한용운 스님과 더불어 민족대표 33인에 참여해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백용성 스님(白龍城·1864~1940). 국가보훈처가 3월의 독립운동가 로 백용성스님을 선정한 것을 계기로 그의 생애와 사상을 재조명하는 학술세미나가 13일 오후 2시 서울 대각사에서 대각사상연구원(원장 보광스님) 주최로 열린다. '백용성스님'과 불교계의 독립운동 '을 주제로 △백용성스님의 생애(보광스님) △백용성스님의 독립운동(김광식·독립기념관 연구원) △불교계의 독립운동(김창수·동국대 교수) △대각교의 성립배경(홍윤식·동국대 교수) 등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김광식씨는 미리 배포한 논문 '백용성의 독립운동'을 통해 "백용성스님의 행적은 전통불교의 불자, 일반불교의 침투 등 일제 식민지체제하에서 불교의 대중화 및 혁신을 위한 불교정신의 재창조였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용성스님의 행적 가운데 △1910년 '조동종 맹약'에 반대해 일어난 '일제종 운동' △선학원 설립 주도와 대각교(大覺敎) 창설등은 위 주장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는 것. 김씨는 "항일불교운동으로 귀결되는 용성스님의 생애 전반은 식민지 체제를 극복하려는 독립운동 그 자체였다"고 강조했다.

보광스님(동국대 교수)은 "지금까지 용성스님에 대한 연구는 대각교 사상이라는 제한된 시각에서만 이뤄져 그의 사상적 다양성과 심원성은 접근하지 못했다"며 사후성과 역사성에 비추어 승려로서, 독립지사로서 활동하였던 독립운동의 관점에서 용성스님을 조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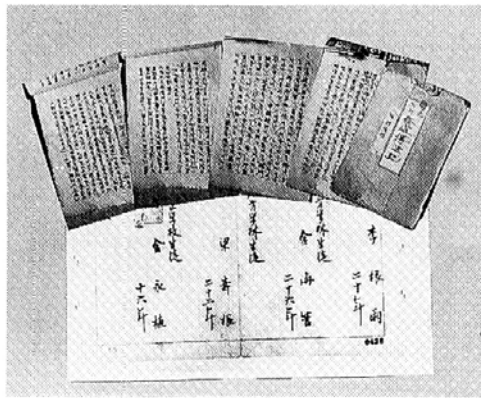
홍윤식 교수는 "용성스님이 한국 전통불교의 정수(精髓)를 유지하면서 재창조하기 위해 '대각교'를 설립했다"고 배경을 밝히는 한편, "대각교 운동은 전통불교의 핵심인 선을 근본으로 삼으면서 율의 엄정한 실천을 제창한 선율(禪律)의 병행, 승려 및 불교기관의 자립화를 위한 노동(勞務) 실시, 불교 교육제도 개혁을 통한 재창조의 과정"이었다며 "1921년을 전후한 대각교 창립을 통해 용성스님은 식민지불교 극복 노력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범어사스님들 3·1운동 자세히 묘사 동광선사 '수도전법기' 공개

3·1운동 당시 범어사 스님들이 동래지역에서 일으킨 만세운동에 가담했던 동광스님(東光 1900~1976)이 당시의 정황을 상세히 기록한 친필유고 <동광선사 수도전법기>와 <동광경사록>이 공개됐다.

두권의 자서전적 원고에서 동광스님은 "경성부 중앙 화림에 재학중이던 김법린의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사(師 동광스님 자신)가 전달 받고 범어사 일주문 근처 나무뿌리 속에 감추어 두었다가 각 학교 학생들에게 전달한 뒤 3월 3일 40명으로 결사대를 조직하고 이를 선두로 동래읍내에서 8시 30분과 4일 오후 4시경, 이틀동안 만세를 불렀는데 이때 동래성의 동문



◇동광스님의 친필유고와 정부기록보존소에 소장된 대구 북심 법원의 재판 판결문

(영주 대현사지)이 최근 공개한 것으로 동광스님이 70년대 초에 집필한 것. 동광스님은 만공스님으로부터 법을 인가 받았으며 학명, 전강, 춘성스님등 당대를 주름잡은 선승들과 함께 선지를 나눈 선승이지만 아직 학계에 조명되지 않았다.

동래지역 만세 운동의 주동자로 부산지방법의 관례에 대해 항소한 13명의 스님들이 5월 20일 대구북심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동광스님도 들어간다는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합세하게 되어 세력은 더욱 커져 동래경찰서로 진입하던 중 놀란 왜경들이 총을 난사하고 칼을 휘둘러 죽는자가 속출하게 되었다"고 회고했다. 스님은 또 왜경에게 체포되어 부산지방법원에서 6개월의 형을 언도 받고 불복, 대구 북심법원과 경성 고등법원에서 다시 6개월을 언도받은 내용들도 기록하고 있다.

종말사상 영향받았으나 선교통합 방식 시도

“보조사님 독창적 선사상 수립”

보조사상연구 1차 禪典연구 발표



◇최연식씨



◇이병욱씨

보조사님(普照知訥: 1158~1210)은 규봉종밀(圭峯宗密: 780~841)로부터 선사상의 영향을 받았으나 독자적 안목을 발휘, 새로운 선수행 방법과 선교(禪敎)일치라는 자기만의 입장을 수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월 27일 열린 보조사상연구원 제1차 禪典연구 '보조의 <법집별행록요법입사기·法集別行錄節要契入私記> 연구' 발표회에서 최연식씨(서울대 국사학과)와 이병욱씨(고려대 철학과)는 종밀과의 비교를 통해 보조의 독창적인 선사상을 밝혔다. <법집별행록요법입사기>(이하 사기)는 종밀의 저술 <법집행록>(이하 법집)을 간추려서 정리하고, 그것을 기초로 자신의 해석을 덧붙인 지눌스

님의 만년(晩年) 저작. '보조의 삼문(三門)의 성격'을 주제로 발표한 최연식씨는 "사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법집>의 해설서라기 보다는 오히려 <법집>을 소재로 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선수행의 요체를 서술한 저술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법집>에 나타난 선수행의 대표적 방법인 삼문이다. 지눌스님의 사상구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삼문은 성적등지문(慳寂等持門) 원돈신해문(圓頓信解門) 경정문(徑證門)의 세가지 수행방법을 일컫는다.

최씨는 "성적등지문과 원돈신해문은 각기 점수와 돈오의 수행법으로 '마음'을 완전하게 인식하는 것(돈오)과 제대로 활용하는 것(점수)은 별개가 아님을 깨닫도록

하는 수행법(정혜성수)"이며 "지눌은 궁극적으로 화두의 참구(參究)를 통해 이론과 개념을 초월하는 경정문의 수행법을 사기에서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병욱씨는 "종밀과 보조의 선교관(禪敎觀) 비교"에서 "종밀은 선종과 교종을 각각 세가지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일치를 시키고 있는 반면 지눌은 종밀의 영향을 받았지만 종밀과 다른 선교통합방식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지눌은 선종의 하택종·홍주종과 교종의 원교(圓敎)는 마음을 기준으로 불교를 설명하며 무념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일치한다고 보고 있다. 이씨는 "지눌의 선교통합은 종밀과 입장을 달리하며 자기방식의 선교통합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지눌의 진면목을 읽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임연태 기자

화엄사상 유심·연기 등 5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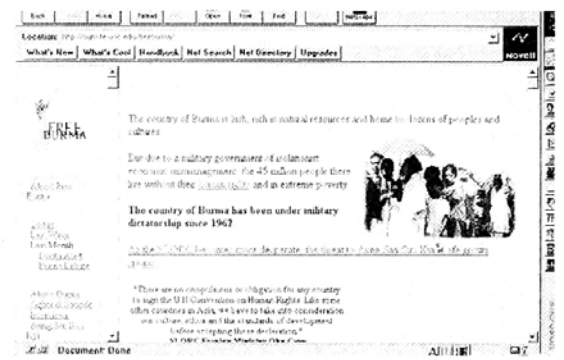
도업스님 화엄경 본문 연구 박사논문

용수 법장 등 화엄교가들의 주석서 연구로 이뤄지던 기존의 화엄경 연구와는 달리 화엄경 본문을 직접 연구한 논문이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연기법을 시·공간적인 상즉상입(相即相入)과 주반구족(主伴具足)의 불이(不二)적인 개념으로 접근, 서양사상이 수직·종속적인데 비해 불교사상은 수평·평등적임을 밝혀 놓았다. 특히 스님은 "화엄경에 나타난 염려는 청명염불이 아닌 지관염불(止觀念佛)이며, 보살행의 조건으로 성내지 않는 마음으로서의 무진에(無進志)가 추가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고 주장했다.

동국대 불교문화대 교수 도업스님이 2월13일 일본 교토불교대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한 '화엄경사상 연구'. 스님은 이 논문에서 화엄경에 담겨 있는 사상을 법신불사상(法身佛思想), 보살사상(菩薩思想), 유심사상(唯心思想), 연기사상(緣起思想), 정토사상(淨土思想) 등 5분류로 분류, 독자적인 연구를 시도했다. 스님은 유심사상에서 "일체유심조"의 '마음'을 생멸하면서 변해가는 우주의 원리 또는 법칙(법신불)으로 정의하고 있다.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불교문화와 정치

전국민의 90%가 상좌부(Theravada)를 믿는 불교국가로, 아웅산 수지 여사가 지난 93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것으로 널리 알려진 미얀마의 불교 예술을 감상하고 정치 상황도 살펴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 미얀마 관광공사가 개설한 '미얀마 불교예술'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쉐다곤(Shwedagon) 탑과 △양곤시의 전경 사진을 제공한다. 2500년전 조성된 쉐다곤 탑은 바닥에서 황금 돛까지의 길이가 98m에 달하며 사용된 금만도 60여톤. 바깥시의 △아나나 사원 탐사도 제공한다. 53광방미터에 이르는 이 탐사에는 51m 중앙 홀 사면으로 9.5m의 입상불상이 모셔져 있다.

호주국립대가 개설한 '버마와 머니언 저편'은 아시아 연구가 고든 루스(호주·1889~1979)가 일생동안 버마를 연구하며 수집했던 △경전 필사본 △사진 △지도 등을 제공한다.

미국 망명 반체제 인사들이 워싱턴에서 개설한 '프리버마'는 미얀마의 △역사 △아웅산 수지 여사 △버마의 향 등의 서비스를 개설, 다양한 정치·사회 정보를 제공한다.

미얀마불교예술 <http://www.myanmar.com/gov/tourist>

버마와 머니언 저편 <http://www.nla.gov.au/1/asian/form/uc.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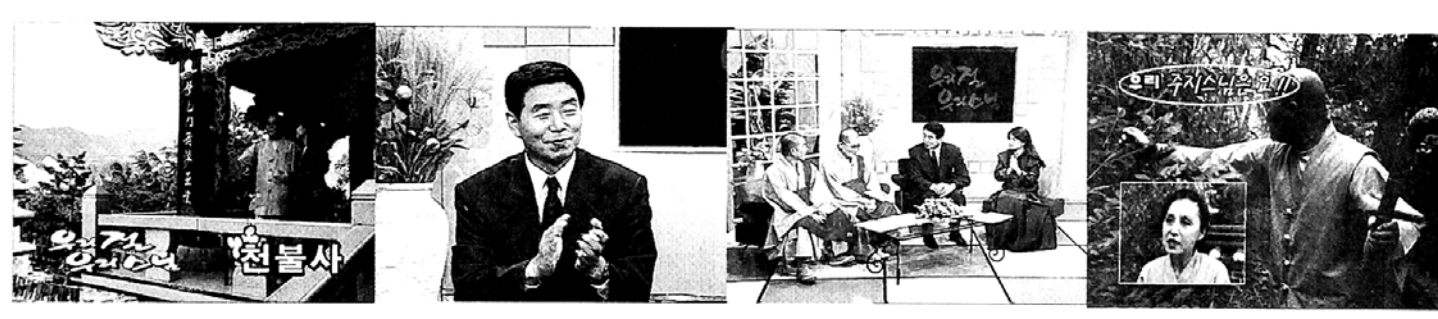
프리버마 <http://sunsite.unc.edu/freeburma/>

버마 프로젝트 <http://www.soros.org/burma.html>

미얀마 불교문화 예술인사이드

지혜의 빛 자비의 샘 채널32 불교텔레비전

이계진 아나운서가 승려절 홍보 보좌관!



우리절 우리스님

방송시간
(50분간 1회분방 3회 재방)

매주 화요일
09:10~10:00
13:25~14:15
22:00~22:50

매주 일요일
18:40~19:30

" 불교텔레비전 '우리절 우리스님'에 출연하길 참 잘했어요."
언제봐도 믿음직한 불자 아나운서 이계진씨가 우리절 지향에 발맞추고 나섰습니다.
우리끼리만 알고 있기에 너무 아까운 우리절 이야기 보따리를 요즘 잘 나누는 프로 '우리절 우리스님'에 나가 풀어보십시오.
가속속은 시원해지고 이끼는 오뎅해집니다.

* 출연문의 : 불교TV 영상사업부 02)3270-3368

* 불교TV는 케이블TV에 가입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btn

불교 TV
서울 마포구 마포동 418번지